이-헤즈볼라 18년만에 전면전 가나…전운 감도는 중동

이스라엘, 시리아·가자지구 공격도 지속…헤즈볼라 반격
레바논 남부 피란 행렬…영국도 자국민에 "즉시 떠나라"
각국 정상 "이 자제" 촉구…레바논 "미국만이 바꿀 수 있어"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사흘째 이어가면서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을 향해 로켓 수십발을 쏘면서 양측이 2006년 이후 18년만의 전면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23일 레바논 전역을 약 650차례 공습해 헤즈볼라 시설 1600개를 타격한 데 이어 24일에도 동부 베카밸리와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로켓 발사대, 지휘통제센터, 무기고 등을 타격하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도 표적 공습을 벌였다.

이스라엘은 25일 새벽에도 베이루트 남부에서 20㎞가량 거리에 있는 해안 도시 인근 사디야트의 창고를 겨냥해 공습을 가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다고 AFP 통신이 레바논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스라엘이 '북쪽의 화살' 작전이라고 명명한 이번 대규모 공습으로 지난 23~24일 어린이 50명, 여성 94명을 포함해 최소 564명이 숨지고 18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레바논 보건부는 밝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뿐 아니라 시리아에도 공습을 가하는 등 헤즈볼라를 겨냥해 전방위적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군 소식통들은 24일 로이터에 이스라엘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시리아 서부 항구도시 타르투스를 향해 발사돼 요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등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단체들과 이들이 시리아로 무기를 옮기는 것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해왔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수뇌부 암살 작전도 계속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4일 베이루트에 표적 공습을 단행해 헤즈볼라의 미사일·로켓 부대 사령관 이브라힘 무함마드 쿠바이시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표적 공습을 통해 올해 7월 말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지난 20일 헤즈볼라 2인자로 불리던 특수작전 부대 라드완의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제거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습에 이스라엘 북부에서 피란한 6만5000명 정도가 귀가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란이 주도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의 일원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자 하마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로켓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는 등 이스라엘과 무력으로 대치해왔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거세게 공격하는 와중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잇따라 공습을 가하는 등 하마스 섬멸을 목표로 내건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고삐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공세에 반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24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100개가 넘는 발사체가 날아왔다. 일부는 공중에서 격추됐으며 일부는 빈터에 떨어졌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다.

헤즈볼라가 이란에 '이스라엘 타격'을 촉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4일 이스라엘과 서방 당국자를 인용, 헤즈볼라가 최근 이란에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그러나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헤즈볼라의 핵심 지원자인 이란이 이번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중동의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다.

이처럼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은 자국민에게 레바논을 즉시 떠날 것을 촉구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4일 ABC방송에 나와 "미국인들이 떠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선택지가 아직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싶다"며 "이런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지금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자국민에게 레바논을 즉시 떠나라고 촉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영국 정부는 대피 상황을 대비한 비상 계획의 하나로 700명의 군 병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피해 레바논을 탈출한 사람들이 시리아와의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는 양측의 전면전을 막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 모인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전면전으로 가지 말라면서 자제를 촉구했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전면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한 뒤 "전면전은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면서 "외교적 해결책은 아직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일반토의 개막 연설에서 "레바논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레바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레바논이 또 다른 가자가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긴급회의를 열어 레바논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압달라 부하비브 레바논 외무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강력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미국만이 중동과 레바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자국을 구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해리스-트럼프 오차범위 내 '박빙'

CNN 해리스 48%-트럼프47%…로이터 해리스 47%-트럼프 40%
CNN "백인男 트럼프 지지 확연…흑인·히스패닉, 남녀는 해리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오차범위 내 박빙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조사기관별로 두 후보 간 격차가 작게는 1%p, 크게는 6%p로 나타났다.

CNN과 SSRS가 지난 19~22일(현지시간) 전국의 등록 유권자 2074명을 상대로 실시해 24일 공개한 여론 조사결과(오차범위 ±3%p)에 따르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48%,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유당 후보 체이스 올리버는 2%,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는 1%를 얻었다.

트럼프 지지자의 72%, 해리스 지지자의 60%는 각각 자신의 지지가 상대편 후보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니라 지지 후보에 대한 선호 때문이라고 각각 밝혔다.

지난 7월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 조사에서 해리스 지지자들의 지지 이유는 '해리스 선호'와 '트럼프 반대'가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으나, 2개월 사이에 해리스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조사대상 중 투표 의향이 있는 무당파 유권자의 지지는 해리스가 45%로, 41%를 기록한 트럼프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무당파 여성 중 과반(51%)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반면 무당파 남성의 지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를 받아 해리스 부통령(40%)보다 높았다. 또 백인 남성은 58% 대 35% 비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했고, 백인 여성은 남성보다 격차가 작은 50% 대 47% 비율로 트럼프를 더 지지했다.

해리스가 선명한 우위를 보인 흑인(79% 대 16%)과 히스패닉(59% 대 40%) 유권자층의 경우 남녀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의 젊은 유권자층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5%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38%)을 비교적 큰 격차로 앞섰다.

한편 투표 의향자들이 느끼는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해리스 부통령이 호감 46%, 비호감 48%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호감 42%, 비호감 55%로 각각 집계됐다.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응답자를 상대로 후보의 견해와 입장이 '너무 극단적'인지를 물은 결과 트럼프에 대해선 54%, 해리스에 대해선 42%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또 투표 참여 예정자 중 51%는 트럼프 집권기가 실패라기보단 성공이었다고 답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몸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실패였다고 보는 답이 61%였다.

정책에선 경제(50% 대 39%), 이민(49% 대 35%), 외교(47% 대 40%) 면에서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낙태권 및 생식권(52% 대 31%), 국가통합(43% 대 30%), 민주주의 수호(47% 대 40%)에서 해리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유권자들이 우선시하는 이슈의 경우 경제가 41%로 가장 많았고, 민주주의 수호(21%), 이민(12%), 낙태(11%)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해저탄광 수몰 '조선인 136명' 떠오를까

日시민단체, 알제강점기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조사 개시

일본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목숨을 잃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 주변에서 24일 유골 발굴 조사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모임)은 이날 유골이 남겨진 채 폐쇄된 조세이 탄광 갱도 입구(갱구)를 찾아 열기 위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중장비를 이용해 지상 현장에서 깊이 수 m의 구멍을 여러 개 뚫었다.

시민단체는 관계자 증언과 땅속 조사를 바탕으로 갱구가 지하 약 4m에 있다는 점과 대략적인 위치도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굴착한 구멍을 통해 갱구로 이어지는 길 등이 있는지 조사했다.

갱구가 특정되면 다음 달 잠수사가 갱구 내부에 들어가 유골 회수가 가능한지 조사할 계획이다.

유족과 시민단체의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유골 발굴 조사에 나서지 않자 모임은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비용을 마련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1942년 2월 3일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발생했다. 갱도 누수로 시작된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희생자 수습과 사고 경위를 둘러싼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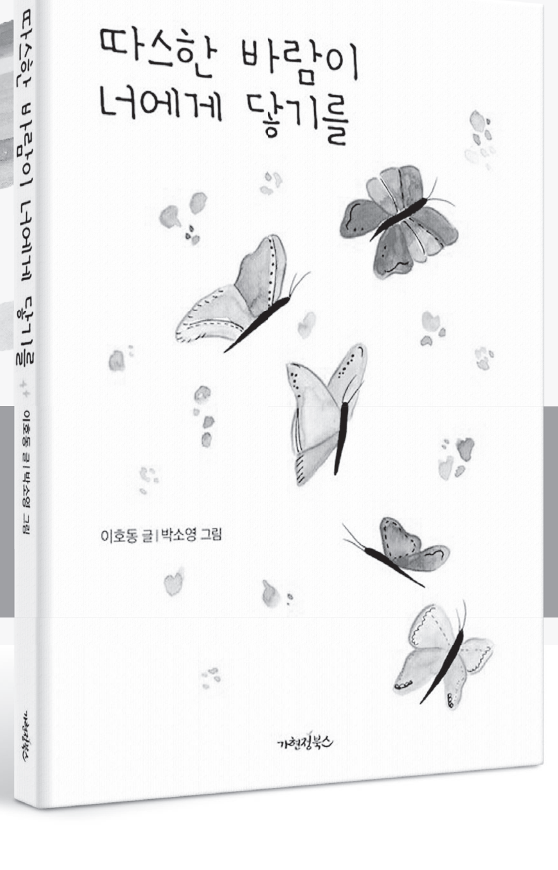
모임과 한국인 유족들은 지난해 12월에도 도쿄 중의원(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골 발굴 촉구 행사에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유골 매몰 위치와 깊이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유골 발굴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당분간 조사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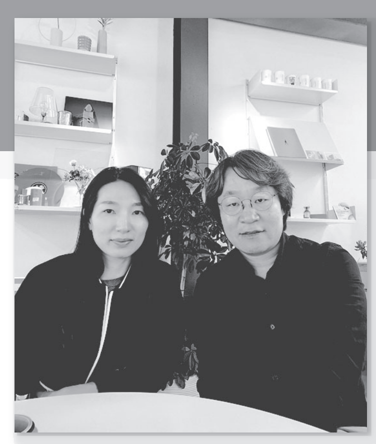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